

리버티대학교에서 연설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리버티대학교 제공



이즈키엘 전수경 단장은 극중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美 펜스 부통령 “전통적 기독교 신앙 반대 세력에 저항해야”

리버티대학교에서 연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날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신앙인들에 대한 조롱과 차별이 일상화 되고 유행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지난 11일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 소재한 리버티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오늘날 가장 큰 소리로 관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전통적 기독교 믿음에 대한 관용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이에 대해 저항할 대비

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올해 초 카렌 펜스 여사가 시 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게 된 기독교 학교에서 입사 지원자들에게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앙고백서를 제출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격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펜스 부통령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미국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행동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미국인들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권리, 배울 권리,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리버티대학교의 제리 포웰 주니어 총장은 펜스 부통령에 대해 “탁월함과, 권위, 존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언론들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미국의 자유와 원칙을 수호해 온 인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인디애나 주 주지사 시절인 2016년 10월 처음으로 리버티대학교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올해 이곳에서 두 번째 연설을 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뮤지컬 ‘마루마을’ 6월 14일부터 공연

극단 이즈키엘(Ezekiel)의 창작 뮤지컬 ‘마루마을’이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LA 한인사회에 선보인다.

‘마루마을’은 서울 대형교회에서 젊은 부목사로 있던 김 목사가 의욕적으로 충청도 산골 마을에 교회 개척을 나가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좌충우돌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는 6월 14일(금), 15(토), 21(금), 28(금), 29일(토)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6월 15일(토)과 29일(토)에는 오후 3시 30분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총 7회 동안 공연되는 ‘마루마을’은 LA 할리우드 블러바드와 별몬 에비뉴에 있는 BARNSDALL GALLERY THEATRE(4800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7)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극단 이즈키엘 전수경 단장은 이번 공연은 지난 2014년 공연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의상이나 무대장치 수준을 높여 극장에서 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뮤지컬에 주연으로 나오는 김 목사 역을 맡은 최원현 씨는 인치엘로(INCIELO) 팝페라 그룹에서 7년 동안 가수로 활동했고, 뮤지컬 ‘도산’에서 안창호 역할을 맡았다. 시골전도사 윤희 역을 맡은 한예람 씨는 ‘오페라의 유령’에서 크리스틴 역을,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 물란 역을 맡았다. 삼식 씨를 맡은 이해찬 씨는 ‘맘마미아’, 디즈니의 ‘리틀 머메이드’ 등의 작품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극단 이즈키엘은 전문 공연예술 단체로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연극 전문가들과 전문 배우들이 “관객을 성도에서 일반인으로 확대시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전수경 단장과 일문일담.

뮤지컬 ‘마루마을’은 소개한다면, 지난 2014년에 발표했을 때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다. 이번에 전경이 좋고 아름다운 반스달 극장에서 공연한다. [2면에 이어서]

영국성공회 ‘고해성사 비밀유지’ 방침 유지키로

영국성공회가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고백에도 ‘고해성사 비밀유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다만 사제들은 참회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경찰서나 법에 규정된 당

국에 자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참회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제는 용서를 금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더럼의 폴 버틀러 사제는 실무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 합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실무 관계자들은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고백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이 방침의 변경은 대주교위원회나 사제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혔다. [2면에 이어서]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개강: 6월 1일(토) ATI 대학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 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지난 12일 11시에 LA씨티교회가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LA 씨티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초심으로 돌아가 일터선교사 양성 매진할 터”

LA씨티교회는 지난 5월 12일(주일) 오전 11시에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일터선교사 양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씨니 김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에서 지근욱 집사가 기도하고, 글로리 찬양대의 특송 〈오 놀라운 구세주〉와 씨니 김 목사의 성경봉독 후, 조희서 목사(서울씨티교회)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왕하 6: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씨니김 목사는 “5년전 일터의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일터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려 한다. 성도 자신이 교회가 되어 일터의 현장에서 일터교회를 이루어가며 일이 수단이 아

닌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타교회 성도들에게 직장인 성도들을 위한 일터 영성과 일터 선교사 훈련을 하려 한다. 성도들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 선교로서의 일을 하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왜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일터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목회적 돌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했다.

조희서 목사는 “통념을 넘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초자연적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현실적 사고를 넘어

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며 초자연적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회성장이 안되고 전도가 안되는 시대라고 말하면 정말 전도와 성장이 안된다. 그러나 씨티교회는 부정적 사고와 통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나아가자. 이 교회는 부동산회사 사무실에서 출발한 일터교회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니 오년 만에 새예배당으로 이전부흥했다.다음 이전때는 새예배당을 건축해서 이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격려했다.

설교 후 이수잔 권사가 봉헌송을 부르고 조희서 목사가 축도하고 헌신의 찬양, 말씀 암송(행 2:46-47), 다니엘김 목사의 코이노니아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1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에 이어서] 마르는 순 우리말로 하늘이라는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천국이 땅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모티브를 놓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서울에서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는 김 목사가 충청도 산골 마루마을에 선교를 와서 전개되는 내용이다. 김 목사는 자기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선교를 오는데, 마루마을의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에서 온 선교사와 순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얽혀지는 대립적인 이야기에 코메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충청도 사투리가 재밌다. 마을에 사는 노총각하고, 한예란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 김 목사,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

객을 성도에서 일반인으로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꼭 크리스천만 보고 극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했다면 좋겠다.

극중에 동시로 영어자막을 추가해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유대인이든, 스님이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뮤지컬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실험적이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극이 맞아 할 정도로 오픈 되어 있다. 보신 분들의 반응에 따르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설교 50편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거하셨다. 배우들은 믿는 것을 무대에서 드러내도록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

-더 소개할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단체로 오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아가 할 수 있다. 배우들이 지난 해 12월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보통 학예회 스타일이 아니고 브로드웨이에 나가도 될 만큼 좋은 뮤지컬이다. 뮤지컬 음악이 가사가 복음적이고 굉장히 좋다. 방학 시기라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같이 와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스포일러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중요시하는 신앙, 그리고 교리가 근본이 되어야 하는 율법적인 신앙,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신앙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루마을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

-뮤지컬을 관람할 크리스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반드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있다. 극중에 김 목사부터 말한다던 ‘선교지에 나가서 당장 교회를 지어야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시작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답답함 등 애환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극단 이즈키엘이 다른 극단과 다른 것이 있다면, 케치프레이즈가 관

극단 이즈키엘은 항상 순 수익금을 가난한 단체에 기부 하고 있다. 이번 공연 순 수익금은 멕시코 소노라 오브레곤 도시에 마약이 만무해 쓰러져가는 커뮤니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어질 ‘Path of Holiness’(거룩으로의 길) 교회를 위해 쓰여진다. 현재 지붕도 없고 쓰러져가는 버려진 집터에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의 가족들과 어린이들에게 예배당 건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웨스턴+올림픽에 있는 기독교서적센터와 이음카페(3020 wilshire) 마가교회(1818 western ave)에서 주일에 할 수 있다.

문의) 213-200-0021, www.ezekiel.la 토마스맹 기자

교육 시리즈 ‘치매 간병인 스트레스 관리법’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연중 기획하고 있는 치매돌봄 교육 시리즈 4차 교육이 오는 5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부터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 ‘치매진단 후 관리 계획’ 치매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주제로 교육 시리즈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회에는 ‘치매 간병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주제로 예린 김 사

회복지사가 강의한다. 스트레스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특히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이나 치매 환자 간병인들은 환자와의 의사 소통이 어려워 환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빨리 지칠 수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교육이 진행될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은 5836 Corporate Ave. Ste 110, Cypress, CA 90630에 위치해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5월 16(목)까지 소망 사무실(562-977-4580)이나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summitus37@gmail.com

얼바인침례교회 제 5대 담임목사 권태산 목사 취임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얼바인침례교회는 권태산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을 감사하며 취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9년 5월 19일(주일) 오후 4:30
장소 얼바인 침례교회 본당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 Am1190 미주복음 방송 **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권태산 목사님 설교가 나갑니다.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30분
 4부: 오후 1시 30분 (청년 한국어)
 FAME 예배: 오전 11시 30분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시 30분 (청년 영어)

↓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금), 오전 6시 (토)

↓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7시 30분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

- 박정직 목사(얼바인 침례교회 제1대 원로)
- 최영이 목사(미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 이상래 목사(미남침례회 남가주 지방회장)
- 장오셀 목사(미남침례회 해외선교부)
- 박성근 목사(LA남가주 새누리 교회)
-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
- 길영환 목사(Gateway 신학교)
- 김재영 교수(ITS 신학대학원)
- 이기철 목사(터스틴 침례교회 원로)
- 박성민 목사(아주사 퍼시픽대학교 부총장)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 켄안 선교사(GMIT)
- 박경호 목사(얼바인 침례교회 제4대 담임)
- Dr. Michael Proud(OC Association Director)
- 김승식 목사(미남침례회 북미주 국내 선교부)
- 김형민 목사(미남침례회 텍사스 주총회)
- 이종용 목사(코너스톤 교회)
- 한충호 목사(임마누엘 침례교회)
-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 이연길 목사(달라스 빛내리 교회 원로)
- 이영선 목사(GBC 미주복음방송)
- 강일하 목사(미주 CGN 대표)
- 백승국 사장(CTS 미주 지사장)
- 미주 중앙일보 신우회 일동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박효진 장로(전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교도관, 현 소망교도소 부소장)가 올림픽장로교회서 간증집회를 이끌었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독거노인 초청 일일 관광 행사를 개최했다.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

박효진 장로 올림픽장로교회서 간증집회

지난 5월 6일(월)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올림픽장로교회(정장수 목사)에서 '영적 전쟁'이란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박효진 장로는 청송감호소 내 수감자들을 변화시켜낸 하나님을 증거했다.

“구치소 안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을 보면서 제 가슴에 불을 받았다. 조그마한 성냥불을 나눠 줄 것이다. 작은 성냥불이라도 잘 받아 심령에 잘 보존하면 번지고 번져 등불을 이루고 산불을 이루게 된다.”

박효진 장로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 청송교도소를 거쳐 현재는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일년에 제사만 41번 드리는 중장집 대종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성령을 체험한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됐다.

“한번 하나님께 붙잡히면 끝장이다. 절대 뇌주지 않으신다.”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닌 지 9년이 되기까지 0.001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믿지 못했다. 없는데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존재 정도로 생각했다. 교회 안에서는 성실하게 봉사하며 누가 봐도 1등 집사로, 교회 밖에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데 1등으로,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 '체인스모커'로 불리며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집사로 칭찬받고, 나가면 세상 동료들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 놀 거다 놀면서 저렇게 교회를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한다'고 추켜 세우니, 당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어깨 올라갔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니, 내가 맞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비웃었다.”

청송교도소..아픈 시대에 잉태된 역사의 사생아

이어서 박 장로는 그가 근무했던, 청송감호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청송감호소는 우리 나라의 가장 아팠던 시대에 잉태된 역사의 사생아다. 청송감호소가 생기자 징역을 살았는데도 위험하니까 사회보호를 부과하고 (수감자들을) 안 내보냈다. '형기가 끝났는데 왜 가둬 놓느냐'란 불만이 가득하고, 자포자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15~20년 형을 끝내고 나가봤자 환갑, 진갑이 넘는다. 나가 봤자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남은 것은 분노, 증오, 버림 받음 밖에 없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버렸다. 인간이 자신을 위한 마음마저 놓쳐버렸으니 짐승보다 못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자해를 하니 규율과 질서가 바다이다. 교도관이 끌고 갈 법이 바닥을 치니, 힘의 균형이 역으로 간다. 그것을 보고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담장 너머로 뛰어 넘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 질서와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앞장섰다.”

“그때부터 그들과 싸웠다. 연약한 여자를 상대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을 징치하기 위해 내 손엔 항상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나름대로 명분에 사로 잡혀 그 길을 달려 갔다. 위험한 고비도 많았고 칼로 목을 찔리기도 했다. 저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해 품은 미움과 증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빛에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다. 좋든 나쁘든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며 산다. 꼭 무엇인가를 향해 쓰면, 그 곱하기 3배가 나에게 돌아온다. 이웃을 사

랑하면 3배의 사랑이 찾아오고 이웃을 용서하면 3배의 용서가 찾아온다. 상대를 판단하면 3배의 판단이 저를 찾아온다.”

“‘흉악한 인간들’, ‘암 같은 인간들’이라며 미워하고 짓밟은 그 해악이 곱하기 3으로 제 인생을 찢어 왔다. 인생의 파탄이었다. 제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옥에서 온 박 수입', '썩늘한 태양'이 죄수들이 제게 불인 별명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38세 되던 해, 성령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는 갑자기 술잔만 봐도 먹기 싫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창자기 끊어지는 듯 했고, 단 하루만에 180도 다른 존재가 됐다.

주님을 만나고 그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몇달 동안 눈물이 흘러 눈가가 짓무르고 따가웠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다.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했고, 하루는 ‘최고 악질’이던 ‘영호’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영호를 불러내 용서를 빌기 위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무릎을 꿇자마자 눈앞에 너무도 밝은 빛이 비취 눈을 뜰 수 없었고 쓰나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환희가 밀려와, 평생 이렇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원수 중의 원수...대한민국 최고의 친구로

“ ‘주인님, 저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죽일 놈이요’ 저는 그러면 ‘아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하며 서로

가정의 달 5월을 독거노인과 함께

사우스코스트 식물원 관광 및 잔치 개최

코이노니아선교회는 독거노인 초청 일일 관광 행사와 노인 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봄가을에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엘에이 근교의 명소로 여행을 다녀오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는) 5월 4일, 노인 32명을 초청해 사우스코스트 식물원을 다녀왔다.

박종희 목사는 “노인분들이 호흡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의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며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은혜교회(김경환 목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선교회는 가디나와 토렌스, LA 카운티와 O.C에 소재한 저소득층 노인아파트나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매 절기마다 잔치를 열고 있다.

올해 5월 10일에는 골든웨스트 타

워에 노인 100여 명을 초대해 어버이날 노인잔치를 개최했다.

여러 인종이 참석한 이 행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됐으며 1부는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즈오브조이’(Wings of Joy)의 공연, 샬롬교회 김준식 목사의 설교, Sing along으로, 2부는 감사 선물 증정 및 점심식사 순서로 구성됐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잔치를 위해 후원한 샬롬교회(김준식 목사)와 여성교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종희 목사는 “노인잔치를 열게 된 것은 첫째로 한 율타리 안에 살면서도 서로 왕래가 없는 분들에게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둘째,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명절에 잠시라도 노인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 (310) 508-2733 (박종희 목사)

우였다. 서로 ‘내가 죽일 놈이요’라고 우기며 사나와 사나이가 땅 바닥에 깔어안고 울었다. 원수 중의 원수 그 둘이 가슴을 끌어 안고 운다. 그 동안의 증오와 살기가 녹듯 녹아 내렸다. 그렇게 울면서도 신기하게 서로 대화가 됐다. ‘영호야, 너 예수님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 아니냐?’ ‘네, 압니다. 흑흑흑.. 그렇게 30분 정도 울고 나서 창문을 보니, 밖에 구경꾼이 바글바글 불러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은 청송감호소의 탐누스가 되었다.”

박효진 장로는 영호 한 사람, 죄수

하나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로 짓는 기준’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 사건 이후로 청송감호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다. ‘영호’ 한 사람의 변화로 9개월 만에 수감자 1,600명이 예수를 영접했고, 수감자들의 기도제목이던 “청송감호소 폐쇄”도 이루어져 그 자리에는 감호소 대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소가 들어서게 됐다.

박 장로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저들을 붙들 ‘벼랑 끝의 선교사’라고 부르며 간증집회를 마무리 했다.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여름학교 모집
6/3 ~ 7/26



ACSI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12>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다녀와서(2)

매 2년 마다 개최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벌써 5회째를 맞았다. 4000명에 이르는 82개국 선교 리더십들이 모이는 집회를 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필자는 매년 넘치는 기쁨과 기대 가운데 참여했다. 4일간의 가장 귀한 시간 중 하나는 각국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 된 선교지 소식을 듣는 시간이다. 그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둘째 날 벌어졌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알메니아의 알타바즈드 목사가 선교보고를 했다. 알메니아 교회들이 비전스쿨에 참여하면서 알트 목사와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단기선교(F.O.)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기선교를 갈 나라고 그루지야나 우즈베키스탄 등을 생각했으나 기도하는 중에 터키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처음에 그와 교우들은 그 음성을 거절했다. 터키가 어떤 나라인가. 1900년대 초 지금의 터키를 이룬 오스만 이슬람 제국이 알메니아를 점령하면서 무려 150만명에 이르는 알메니아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피눈물나는 역사가 있었다.

서했다니 우리 아제르바이잔 그리스도인들도 당신들 알메니아를 용서했다고 전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82개국 모든 참가자들은 동시에 '아멘, 아멘!'을 외치며 큰 박수로 그들을 축복했다.

뒤이어 나온 강사는 터키의 디야르 바르크 개신교회 아흐멧 목사였다. 필자는 매년 선교지를 갈 때 마다 디야르바르크 아흐멧 목사의 교회 순례자 숙소에서 묵곤 했다. 그는 터키 개신교회 협의회 회장도 역임한 존경받는 목사다. 그가 강단에 올라서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터키인을 대표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간 터키인들을 대신해서 알메니아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달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예정에 없었던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다. 몇몇 터키인 목사가 올라가 그 곁에 무릎을 같이 꿇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강단으로 알메니아의 알트 목사와 알메니아인 교우들이 오르기 시작했다. 무릎 꿇은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도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내서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는 견잡을 수 없는 감동의 파장으로

그 자리에 모인 4천명 전체가 동시에 축복의 기도를 하는 대(大) 참회와 대(大) 용서의 기도인 금향로가 되었다. 그렇게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막혔던 원수의 답을 허는 화평의 자리가 되었다. (계속)

성자 장기려 박사의 나눔의 행복 (3)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예수, 바보 천사, 살아 있는 성자, 푸른 십자가, 아름다운 의사, 송도의 성자 등등은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를 칭송하는 말들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좋은 신앙인이요, 좋은 의사요, 훌륭한 사회 복지사업가요, 따뜻한 기부천사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 '성자 바보'라고 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는 순애보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1932년 4월 9일 경성의전 선배인 내과 의사 김하식의 딸 김봉숙과 새문안교회에서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두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그는 한국전쟁 북한군이 후퇴할 때 평양에 남아 있다가 평양에서 운영되던 국군병원과 유엔군 민사처(UNCACK)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1950년 12월 3일 긴박한 전쟁 중에 부인과 5남매와 헤어져 둘째 아들 장가용만 데리고 중공군에 밀려 철수하는 국군들을 따라 아전병원 앰블런스를 얻어 타고 월남했습니다. 잠시 전쟁의 포화를 피하면 바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두고 차남 장가용만 데리고 월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 의하면 장 박사는 평생 북쪽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가 성자로 불리게 되는 데는 젊은 시절 홀로 월남하여 수절하였다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월남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왔기에 홀로 수절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다섯 분입니다. 부산 부전교회 한병기 원로 목사님, 나성 영락교회 세우신 김계용 목사님, 부산 동성 교회 김병주 원로 목사님, 서울 평안교회 이성택 원로 목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사님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 박사는 늘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장기려 박사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장기려 박사의 조카 장혜원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들어 보니 비교적 잘 살고 있더라입니다. 조카와 주변 사람들이 권해서 북한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 아내에게 보내진 장기려 박사의 편지에도 그의 인격과 사랑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장기려 박사의 편지 일부를 소개합니다. "... 40년을 남한에 홀로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소. 하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혹 돌 중에 하나가 죽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라고 한말을 기억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여보! 몇년 전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여 해후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산양리의 옛집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일천만 이산가족 도모의 아픔이 나만 못하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복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 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런 믿음으로 국가가 제안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마저 양보했던 것입니다. 과연 장 박사다운 양보요 기다림입니다.

그는 평소 "사람 앞에는 어떤 이념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력도 경제력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 해왔습니다. 고, "비문에 '주를 섬기다간 사람'이라고 적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의술로, 나아가 인술로 사랑을 심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마저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닮은 고단한 길을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는 성탄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도 당뇨를 앓아 의료진의 관리를 받아야 했지만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다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험벗고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서 병원 원무과 행정직원들에게 찢쩍대며 양해를 구하셨던 장기려 박사는 마지막 또한 감동적 모습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노년에 남긴 다음 글은 우리 영혼을 적셔줍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찬탄하게 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목숨을 아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잘 죽는 자가 잘 사는 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생명은 죽음에 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도리어 열심히 이 죽음의 길을 찾을 것이다."

아메리츠파이낸셜, 청소년 재정교육 캠프 개최

청소년의 재정교육을 위해 청소년 재정캠프(Youth Money Camp)를 매년 개최해 온 아메리츠파이낸셜에서, 올해는 6월 10-11일 옐로 카운티에서, 6월 12-13일 LA 지역에서 13-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정캠프를 진행한다.

특히, 이 캠프에는 골드만삭스사의 자회사인 글로벌 애틀랜틱 파이낸셜 그룹(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과 패시픽 시티 은행(Pacific City Bank), 한미은행(Hanmi

Bank), 김앤리 공인회계사(Kim & Lee CPAs), 잡코리아USA(Jobkorea USA),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OC 상공회의소, OCH한인회 등의 커뮤니티 기업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올해 4회를 맞이한 아메리츠파이낸셜 청소년재정캠프는 은행, 세금, 투자, 보험, 크레딧 관리 등 재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여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

금을 지급한다.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특히, LA 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중간 소득층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참가비를 장학금으로 돌려준다.

이 단체는 "주변에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셔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김은정 매니저 (619-889-2004, OC 담당), 장윤정 매니저(213-663-3609, LA 담당)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사장 : 존 킴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제33차
5월 27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Memorial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체를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광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5월 27일(월) Memorial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갈렙의 신앙성과

여호수아 14:6-15



본문 여호수아 14:6-15

40일 정탐을 보내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여년간 짓밟혀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시작하시고, 유월절이 있는 후 광야로 삼일 길을 걸어갔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지 2년쯤 되었을 때 바란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12지파중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가나안으로 정탐하기 위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길에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중에 절반이 그곳의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지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후손인데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왕 바로의 채찍아래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40일동안 정탐을 마친후 돌아와서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열 지파 족장들은 매사에 절망을 앞세우는 비판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불가능이라는 생각 속에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경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어있고 그들의 앞날은 절망뿐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 노력에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산 믿음의 자세만 확실하면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뒷바라지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백성의 절망

두 가지 상반되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

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14:1-4)”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보고에 절망을 나타내는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이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죽음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

열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7-9)”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많은 시련과 환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더욱 믿어지는 연단으로 훈련시켜 오셨으며, 나를 두고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하신 용도사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청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14:11-12)”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께서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민14:13-19)”라고 지혜롭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0-24)”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한꺼번에 구분되어 선포되고 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30-35에서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인즉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중략)...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

서 구원의 온갖 이적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독하게 믿어 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성과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문은 열심히 드나들지만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기사를 다 체험하며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불신앙을 생활의 철학으로 알고 잘못 사는,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킬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간구

갈렙은 85세에 그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갈렙은 결국 그는 그의 발로 밟은 땅을 하나님이 쟁취 차지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자녀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로 발전합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자기 자신만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죄 값을 무거운 짐으로 물려주고 저주를 남기고 떠나야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여분네의 신앙성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갈렙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갈렙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관(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정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우),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가정의달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 | | | | | | |
|--|---|---|---|---|---|---|
|  |  |  |  |  |  |  |
|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조영천 담임목사

아틀란타새교회 조영천 담임목사와 새로운 시대 개막

지역 목회자들 “건강한 교회 성장 계속 이어지길”

아틀란타새교회 조영천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28일(주일) 오후 4시 거행됐다. 교회 성도들은 물론 PCA 동남부노회 관계자 및 손님들로 가득찬 예배당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위임식은 1부 예배, 2부 위임식, 3부 축하와 권면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지난해 여름 사임한 뒤 9개월만에 새교회를 찾은 심수영 원로목사는 예배소서 4장 11-16절을 본문 삼아 “세워지는 교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두에서 자신의 지난 목회점수를 겸손하게 평가한 뒤, 조영천 담임목사와 새교회가 세 가지 ‘H’를 따라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3 H는 ‘Head’, ‘Heart’ 그리고 ‘Hands’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말씀을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지 않는자 몸부림치는 동시에 성도간의 화목과 연합, 이를 통한 재생산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하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한 그는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도록 몸부림 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고집, 주장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기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당부했다.

이러진 위임식에 위임국장인 조영팔 목사(동남부노회 중부 시찰장)는 먼저 조영천 목사에게 담임목사로 지교회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신실한 소원에서 나온 것인지, 마지막으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애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품행을 유지할 것을 단단히 서약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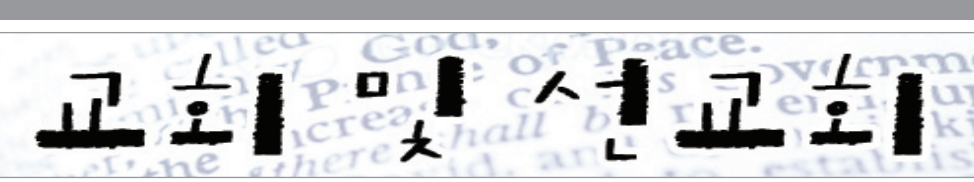
곧바로 교우들에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기꺼이 영접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적절한 권징에

복종할 것, 그를 격려하고 영적으로 덕을 세우려는 그의 노력에 협력할 것 마지막으로 적합한 생활비와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것을 물었고 한 목소리로 명쾌하게 ‘네!’라는 답으로 서약을 받았다. 이후 기도와 공포, 약속제가 이어졌고 박기흠 목사(그레이스커뮤니티채치)가 목사를 위한 권면을, 박대웅 목사(예수소망교회)가 교우들을 위한 권면을 했다. 박기흠 목사는 새교회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2세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며, “하나님,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를 하시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필요이며 기도는 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또한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박대웅 목사는 “앞에서 선서하신 것들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다”고 재차있게 운을 떼 뒤, 영적인 유익을 위해 특별히 담임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몸예 연합해 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영천 담임목사는 “지난 6개월을 보내며 그동안 심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해 오셨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직 부족하고 젊은 목회자를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앙을 고백하며 마음이 뜨겁고, 열매가 풍성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사했다.

끝으로 모든 임직예배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마무리 됐다. <조영천 목사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B.A)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M.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hil.(Ph.D.),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부목사 박현희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생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예배) 오전 9:30(대예배) 오전 11:30
대학친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대상으로 이념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산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토) 오후 7:00(월-금)
6:00(토)
유초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근처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월요일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0:50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우리가 바로 ‘왕의 어린이!’

제일장로교회, 전 교육부서 함께 어린이들 섬겨



2019 제일장로교회 왕의 어린이 잔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주일(6일) ‘왕의 어린이 잔치’를 열었다. 매년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초청하신다는 의미로 전 교육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순절 동안 진행해 온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아이들이 찍은 영상을 시청한 뒤, 친교시간 전에는 성도들이 양쪽에 서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통해 ‘왕의 어린이’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했다.

이후 아이들은 서삼정 담임목사의 축

복기도를 받은 이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불고기를 먹으며 기쁨을 나눴다. 이후 비전센터에 모인 어린이들과 성도들은 미니 올림픽을 열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일장로교회는 5월 29일(수)부터 6월 1일(토)까지 VBS 캠프를 교회에서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Life is Wild, God is Good’으로 은혜로운 예배와 성경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770-878-3086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영남예배) (스캐베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타노 오후 6:30

GCYM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보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유초등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후 7:00

김은묵 담임목사

평화교회
선교와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church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유초등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김은묵 담임목사

평화교회
선교와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말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말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례와 함께 할 때 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금), 6시 30분(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EM 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화-토) 5:3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일 오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EM 10:15, 오후 12:40(교육관) 2부예배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원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레크 Valley Chapel MP 센터 최 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예장 합동 제56회 목사장로기도회, 광주서 개최



예장 합동 제56회 목사장로기도회가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했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목사와 장로들이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 교단 내 현안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56회 목사장로기도회'가 13일 오후 광주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기도회는 15일까지 이어졌다.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아가 2:10)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기도회는 개회예배와 음악회 및 저녁집회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예배에선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루트 1장 20~21절 본문, 이번 기도회와 같은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희망을 기대하는 이유는 현재가 절망스럽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상실한 채 신음하는 청년들, 심각한 국가경제로 한숨짓는 국민들, 끝모를 대립과 갈등의 정권, 게다가 터져 나오는 사회적 이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 기준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안타까움은 우리 안에 있다”며 “공교회의 훼손과 거룩한 질서의 파괴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새로워지려는 결단과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해버렸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세대를 향한 꿈도 포기해 버렸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 때문이고 우리의 다음세대 때문”이라며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기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 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목사와 장로들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목사는 “교회가 환경 탓, 세상 탓, 트렌드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며 “주님의 자리에 둔이 앉거나 권력이 자리 잡는 한 미래는 없다. 희망은 거품처럼 꺼지고 만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가면 다시 희망이 살아난다”고 했다. 그는 “슈퍼스타 같은 인물이 교회를 일으킬 수 없다. 초라한 예배당에서 섬기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 주님의 일꾼들이 교회의 희망”이라며 “십자가와 고난, 죽음이 기다려도 주님과 함께 가면 놀라운 미래가 열린다. 주님과 함께 가면 희망이요, 승리가 된다”고 했다.

한동대 “인권위 권고, 학습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한동대학교 ©한동대

한동대학교가(총장 장순홍)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한동대에서 지난 2017년 12월 있었던 소위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 학교 측에 △해당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와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허용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난해 12월 18일 권고했었다.

이에 한동대는 지난 3월 22일 답변서를 통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편집자 주) 관련자로서 이에 관한 강연을 교내외적으로 적극 주최하고 설교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념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가 추구하는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정면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기

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의 해당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지도를 위한 절차”라며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이행사항을 준수한다면 징계조치를 해제하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동대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반한 교육을 받기 위해 한동대에 입학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다자성애, 동성애를 주장하고 성매매 합법화 요구의 강연회를 강행한 소수 학생들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결정은 한동대를 입학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저스틴 웰비 대주교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람베스 궁

“美-英,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 위한 외교 정책 펼쳐야”

웰비 대주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 대화

영국의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가 8일(현지시간) 램베스 궁에서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비 대주교는 모임에서 영국 정부가 박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해 무역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와 유효하고 필수적인 외교 정책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트위터에 “이러한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웰비 대주교는 군사적 제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수인들의 유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에서 군사적 중재는 때로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후 트위터에서는 “군사적 제재는 기독교인들과 소수 종교인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이라크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 이라크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끔찍하게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대표자로 참석한 케빈 맥도날드 대주교 역시 이같은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려는 독자적으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 전반의 정책, 특히 원조 및 타국에 대한 무기판매 등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이 중재했으며, 유대인 랍비 에프라임 미르비스와 이슬람 이맘인 카리 아심도 참석했다. 헌트 외무장관은 지난 주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올 여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목사 확정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가 잔재혁 목사에 이어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지구촌교회는 12일 주보를 통해 “지난 4월 7일 임시제직회 및 임시사무총회를 통해 95.9%의 찬성으로 최성은 목사를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인준했다”며 “그 후 타코마제일침례교회로 청빙 요청서를 전달했고,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한 달 동안의 기도과 5월 5일 제직회 및 임시사무처리회를 통해 최성은 목사를 지구촌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은 목사는 지난 4월 14일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주보 ‘목양편지’에서 “

며칠 전 지구촌교회에서 사무총회 마지막 인준을 거쳐서 정식 청빙 요청이 왔다”며 “그러나 저는 저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TFBC(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 물어 달라고 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에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구촌교회에서 저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후보자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촌교회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고 TFBC가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석방된 아시아 비비, 최근 캐나다 도착”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8년을 복역하다 무죄로 석방된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가 최근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CNN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녀의 변호사 사이프 울 마루크는 “비비가 최근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도 파키스탄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비비가 파키스탄을 무사히 떠났다고 전했다. 신성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8년 간 수감생활

을 해 온 그녀는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거둬들일 살해 위협에 가족과 떨어진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자녀들은 이미 캐나다로 건너간 상태였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1월 이슬람 급진세력들이 제기한 석방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상고심을 기각하며 비비의 석방을 최종 확정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the South Bay and Torrance areas, including 가디나선교교회, 나성금란교회, 대흥장로교회, 세계성경장로교회, 좋은소식교회, 주비전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한인소망교회, 가디나장로교회, 남가주살롬교회, 돌로스교회, 은혜로교회, 주님세운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and 한인소망교회.

O.C, 엘바인 지역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the O.C. and El Segundo areas, including CMF선교회, 갈보리새생명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동신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UBM교회, 감사한인교회, 남가주 벨엘 교회, 남가주 순복음교회, and NEXT 사랑의교회.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상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cc.org

람학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몰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정기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름세대를 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중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김인철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시간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김인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최성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목회자들의 목회자’
워렌 위어스비, 89세로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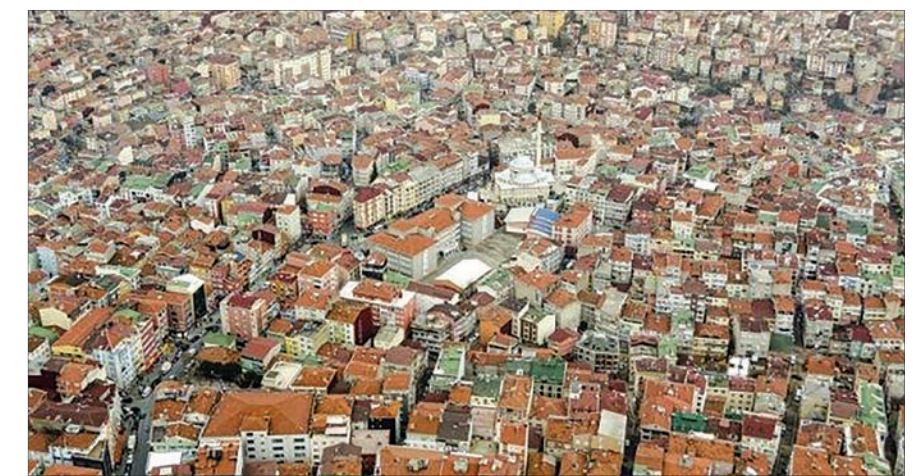
워렌 위어스비. ©페이스북

유명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가 2일(현지시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위어스비 목사는 약 150권의 책을 저술했다. 특히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하며 10여년에 걸쳐 저술한 ‘핵심 성경 연구’와 설교의 핵심 원리를 전달하는 ‘설교의 정석’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 등이 유명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유스포크리스천(Youth for Christ) 집회에서 빌리 그래햄 목사의 연설을 듣고 회심한 후, 1951년 일리노이 주 롬바르드에 소재한 북침례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1957년까지 인디애나 주 시카고 동부에 소재한 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1961년부터 10년 동안, 캔터키 주 카빙턴에 위치한 갈보리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며,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시카고에 소재한 무디기념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무디기념교회에서 전한 그의 설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전파를 뒀으며, ‘월간 무디’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칼럼을 저술하며 목회자들의 멘토로 활동하게 됐다.

밥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무디기념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그는 계속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을 공유했다. 특히 ‘백 투 더 바이블’(Back to the Bible)이라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의 소천 소식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SNS에 애도를 표했다. 제리 바인스 남침례회 전 총회장은 “나의 위대한 멘토이자 친구인 워렌 위어스비 박사가 지난 5월 2일 하늘로 갔다. 여기 손자의 헌사가 있다. ‘할아버지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가르쳐주신 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무디교회 어인 루처 목사는 “그분은 이미 ‘잘 하였도다 착하고 총명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그분의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 스트로벨 작가는 “150권의 책을 저술한 워렌 위어스비 박사가 9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주님 곁으로 가셨다. 나 역시 그분의 책으로 유익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터키, 미국인 선교사 재입국 금지



터키 이스탄불. ©Unsplash

최근 터키 정부가 미국 선교사의 재입국을 금지하면서 외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위치한 카디코이 인터내셔널에서 봉사하고 있는 마이크 플랫(Mike Platt) 목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터키 인근 국가로 나왔다가 재입국을 금지 당했다. 중동 기독교인들을 위한 인권 단체인 미들이스터컨선(Middle East Concern, MEC)은 마이크 플랫 목사가 지난달 2일 터키를 떠날 때, 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로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플랫 목사가 재입국을 시도할 때 더욱 강화되어, 그는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가 다음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MEC는 “플랫 목사는 터키에서 21년이나 살았으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어떤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터키 입국이 금지된 외국 기독교인들은 4명에 이른다. MEC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카디코이 소속의 또 다른 봉사자도 변호사와 이민국에서 재입국을 보증했으나 결국 거부됐다. 어떤 이유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성경정보협회(Bible Information Association)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파멜라 윌슨 부부 역시 지난 2월 7일 공항에 구류돼 있다가 터키를 떠났다. 작년 10월에는 캐나다 출신 미국인 데이비드 베일이 앙카라에서 보안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2주 안에 터키를 떠나야 했다. 그의 구금은 터키 법원이 2년 동안 수감돼 있던 앤드류 브런슨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명령한 지 며칠 후 발생했다. 터키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브런슨 목사는 간첩 및 테러활동 혐의로 수감됐다. 이후 미국이 터키에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자, 터키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최근 몇 달 동안 터키 입국이 금지된 외국 기독교인들은 4명에 이른다. MEC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카디코이 소속의 또 다른 봉사자도 변호사와 이민국에서 재입국을 보증했으나 결국 거부됐다. 어떤 이유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성경정보협회(Bible Information Association)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파멜라 윌슨 부부 역시 지난 2월 7일 공항에 구류돼 있다가 터키를 떠났다. 작년 10월에는 캐나다 출신 미국인 데이비드 베일이 앙카라에서 보안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2주 안에 터키를 떠나야 했다. 그의 구금은 터키 법원이 2년 동안 수감돼 있던 앤드류 브런슨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명령한 지 며칠 후 발생했다. 터키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브런슨 목사는 간첩 및 테러활동 혐의로 수감됐다. 이후 미국이 터키에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자, 터키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다.

강혜진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금주의 중보기도(5/13~05/19)

05/13 멕시코: 차야파스 산악 지대에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꾼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도록. 05/14 인도네시아: 신성모독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아브라함 모세(Abraham Moses)를 위해. 05/16 라오스: 성경계서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 마음을 얻고 신자들을

격려하도록. 05/17 모리타니: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배교법이 폐지되도록. 05/19 파키스탄: 무슬림에게 회심한 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을 위해.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천붕(天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심은 천붕입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신 것을 알고, 나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미를 위해 공황으로 가는 길에, 집의 지붕이 날아간 것 같은 어려운 마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지붕이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큰 슬픔이지만,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부모에게 얼마나 더 큰 슬픔이 될까요?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자식이 부모 먼저 죽는 것은 불효이고 부모의 큰 슬픔입니다. 한국에서 교분을 나누던 장로님이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빕니다"하며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받을 어떤 것도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보상하여 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선물도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충무공과 같은 성웅도, 정약용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과 같은 대학자도 아들을 잃은 마음을 담담하게 시로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충무공은 "난중일기"에서 이처럼 절절히 외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다니.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하거늘. 이 어찌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 일이 있단 말인가!" 정약용은 9남매 자녀 중에서 6남매를 잃었습니다. 그중의 한 아들이 죽어가는 비극을 체험하며,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짓습니다. "마마로 죽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등창으로 죽다니 억울하지 않으리요.... 지난해 모진 고통 네가 겪고 있었을 때 나는 한창 질탕하게 놀고 있었지... 내 마음 빛나갔으니 별 받아 마땅하리. 이리고서 어떻게 징벌을 면할 건가?"

시인 김현승도 "눈물"이라는 시에서 늦게 둔 아이를 잃은 고통을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더러는/ 옥도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아버지들은 자식을 마음에 묻고 뒤 돌아 눈물을 흘리지만, 부부 중에서 자녀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항합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자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어머니는 차라리 자식을 살릴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라면 비장해지고 결연해집니다. 어린 외아들을 잃은 수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저항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살립니다. 그 장소에서 수백 년 후,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진국, 진짜배기

일반적으로 책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의 지인이 저자와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추천의 글, 책을 쓴 목적과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 해놓은 저자의 서문, 그리고 본문입니다. 흔히 독자들은 추천의 글이나, 서문은 무시하고 바로 본문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는 본문을 읽기 전에 추천사나 서문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사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추천인은 다름 아닌, 저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추천인은 저자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고합니다. 대학교수와 학생으로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을 회고하며, 연신 저자가 "진국이다. 진짜배기다"라는 표현을 자주하였습니다. 이후, 저자에 대한 추천인의 진솔한 소개 때문인지, 책에서 저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고, 다른 이에게 "진국, 진짜배기"라 평가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있는 반면,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야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 우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 없고 정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 "백년을 살아보니"에서 읽은,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새 총장을 뽑기 위해, 김 교수님의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000 교수님을 차기 총장으로 추천하려 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김 교수님은 순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천을 받은 그 교수님은 실력에 있어서는 탁월한 분이었지만, 야망이 있으신 분이로서, 작은 대학교 총장으로 만족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대학교 총장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 정도로만 생각하여 정작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아,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분은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 진국, 진짜배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순간 잘 보이고, 잘 넘어가는 알파한 사람이 아니라, 진국, 진짜배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종교적이고 알파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된 신앙인, 신앙의 진국, 신앙의 진짜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국이야 진짜배기야"라는 평가가 우리를 두고 하는 평가이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실버들의 도전(4)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가장 큰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머니'인가 보다.

나에게도 어머니는 특별하고 다함없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지 3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저며 오며 눈물이 솟아난다.

어머니는 태어나실 때 강원도 흥천에서도 가장 외진 서면, 그것도 면 소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기도와 산 능선 하나 사이에 있는 동막리에서 4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나셨다. 외조부님은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으셔서 오빠와 남동생은 남자라고 한학(漢學) 선생님을 집에 모셔놓고 한문을 가르치셨지만 이모와 어머니는 딸이라고 글방에 출입도 못하게 하셔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십리가 넘는 곳에 있는 도리소 소학교를 다니신 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어머니는 머리가 명석하셔서 오빠와 동생이 배우는 천자문은 물론 명심보감까지 귀동냥으로 듣고 외우셨으며 다른 서책들을 읽어 한학에 유식하셨다. 글방 선생님이 어머니의 명석하심



정 운 길 목사
미주실버선교회

을 아시고 들어와 배우라고 해서 남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배우셨다고 한다. 그래서 사자성어도 잘 아시고 무슨 말이 나오면 어느 책 어느 편에 있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도 가르쳐 주셨다.

어머님도 연로하여 모든 하던 일을 큰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기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 그런데 언젠가 서울 막내 아들집에 오셨는데 어디가 아프고 말씀하셨다. 어머님의 병간호를 둘째 형수와 내 아내가 맡아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기울였다.

문제는 이제 돌아가실 텐데 무엇보다 우선 영혼구원이 급선무였다. 아내와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지막 자식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

"운길아! 어머니가 이상하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로 들려오는 큰형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예, 알았습니다.. 작은형한테 연락하고 함께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교감에게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 흥천에 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린 교감이 "어서 가 보라"고 한다.

어머니가 누운 방에 들어가니 나를 나뉘라셨다.

"글 안 가르치고 왜 왔어?"

"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지요."라고 대답을 하고서 형한테

"지금 같으면 돌아가실 것 같지 않네요." 하니

"아니야, 잠깐 정신이 드신 것뿐이야." 하신다.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작은형이 제대로 뒷사람들에게 연락을 못하고 급히 왔더라 잠깐 서울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해서 다시 서울로 갔다. 그야말로 글 가르치러 다시 학교에 들어갔더니 교감이 "아니 정 선생, 왜 왔어?" 하신다. / "예, 아직 돌아가실 것 같지 않고, 수업이 남아서요."

"이 사람! 어머니가 운명하셨다고 연락이 왔네." 하신다. (계속)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된 이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 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의 갱신을 꾀하는 교회, 소그룹과 양육 중심의 교회, 1세와 2세가 함께 세워 나가는 교회, 이민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의 목회상을 가진 이민교회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 비전에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신 분
-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당회원) 3년 이상 경험하신 분
- 소속 : PCUSA 소속 또는 개혁교단 소속으로 PCUSA 가입 가능한신 분
- 언어 : 영어와 한국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하신 분
- 신분 :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한사항 : 본 교회의 현재 사역자나 또는 지난 7년내에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은 청빙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Personal Information Form (PIF, Revised 3/2016, 개인정보양식)을 다운로드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PCUSA website https://oga.pcusa.org)
- 추천서 2통(봉인)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사본
- 목회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회본 (USB 또는CD)
- 본인사진

제출 마감

2019년 6월 11일 (우편소인)

보내실곳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Attn: KCPC PNC (Pastor Nominating Committee)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문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청빙위원장

PCUS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교회원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Ministry Information Form (사역정보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IF와 PIF 양식은 본교회 청빙안내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yunhap.org

황해도 교직자 임시 총회

황해도 교직자 회원님께 알립니다.

이극봉 회장님의 사임으로 인하여 임시총회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은 바쁘신 과정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는 5월 30일(목) 오전11시 정각 용수산 식당에서 회장님과 임원을 선출 하는 임시총회가 있사오니 봉사를 하실 회원님을 추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00

장소 : 용수산 식당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213-705-0404 (오후 2시부터 연결 가능)

연락처 : (회비는 없사오니 부부동반 하셔도 환영 합니다.)

*황해도 출신이면 누구나 참석 할수 있사오니 관심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오실수 있습니다.

전 교직자회장 목사 대표 : 이 배 형

장로 대표 : 이 화 롱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학교
 교미라고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기독교일보 "6월 썸머스페셜" 추억여행
"포인트 로마"와 "코로라도 섬" & 기차여행

지명	시간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교일보	08:00	기독교일보 집결 (3020 Wilshire Blvd, #160)	
유니온 역	08:30	유니온 역 도착 후 승차 수속	대형 고급 버스
	08:40	기차 탑승 [태평양 연안 기차 여행] 출발	
오션사이드	10:52	오션사이드 도착 후 렉시 뷔페 중식	
포인트로마	13:30	포인트로마로 이동 및 도착 후 [추억 여행] 주어진 미션 수행 [사진 촬영]	기차 여행
샌디에고	14:30	샌디에고로 이동 및 도착 [항만 관광]	
	15:00	[페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중식: 렉시 뷔페
코로라도 섬	16:15	호텔 델 콜로라도 [추억 여행] 후 L.A.로 출발	
기독교일보	18:30	기독교일보 도착 및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렉시 일식 뷔페), 기차(L.A. Union to Oceanside), 포인트로마 입장료, 페리 탑승 요금 등.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호텔 델 콜로라도, 페리, 포인트로마 등대

The Luxe Buffet 일식 뷔페
 팁(\$10)별도
\$99
 기차 포함

오션사이드 피어, 기차 여행

Tel. (213)739-0403, (213)434-1170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chdailya@gmail.com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상영작 뭐가 있나?

‘미션(Mission)’ 주제로 총 30편 상영...개막작은 ‘하나님과의 인터뷰’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2019 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 이하 SIAFF)가 개막작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SIAFF의 주제는 ‘미션’이며, 상영작은 △아가페 초이스 △미션 초이스 △필름포럼 초이스 △기독교영화인상 10년 특별전 △SIAFF 사전제작지원작 특별전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아가페 초이스는 주님이 빛을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삶을 영화를 통해 조망해보려는 섹션이다. 올해는 일상과 육아에 지친 외로운 여성들의 일상과 정치와 전쟁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다룬다.

와일드 로지스 (Wild Roses)는 감독 안나 자도스카 Anna Jadowska가 2017년 제작한 영화로 2018년 폴란드영화상 후보, 2017년 폴란드영화인 비평가상 최우수상, 2017년 스톡홀름 영화제 임팩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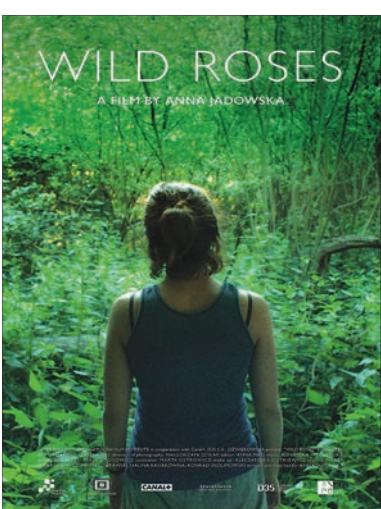
들장미 농장에서 일하는 에바는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다가 돌아온다. 에바의 남편 역시 노르웨이에서 몇달 동안 일하느라 부부의 두 아이들은 에바의 친정 엄마가 돌본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에바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남편은 급기야 에바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에바가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두 살짜리 아들이 실종된다. 에바는 입원했던 병원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려고 한다.

엘리자베타 스티쇼바 Elizaveta Stishova가 감독한 스킴마인 마운틴(Suleiman Mountain, 2017)은 2018 카를로바리 국제영화제 지중해유럽 비평가협회상, 2018 유라시아 국제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카라바스는 도박과 술에 빠진 남자이다. 임신한 젊은 둘째 부인과 살고 있는 그에게 첫번째 부인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아들을 찾아 데려온다. 카라바스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쁨이지만 둘째 부인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불안이다. 이렇게 함께 살게 된 4명의 가족은 서로를 견제하며 속이게 되고, 자신밖에 모르는 카라바스는 자신의 옛 생활 방식과 두 부인들과 두 아들들 사이에서 갈등한다.

본인 에빈(Born in Evin, 2019)은 마리엄 자리 Maryam Zaree가 감독한 다큐멘터리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촬영했다. 2019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작에 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악명높은 정치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아가페 초이스에 선정된 영화들. 왼쪽 부터 와일드 로지스, 스킴마인 마운틴, 무화와 나무와 미션 초이스에 선정된 언플랜드.

수용소인 에빈 감옥에서 출생한 배우 마리엄은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을 추적한다. 1980년대의 이란의 종교적 리더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수 만명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인했다. 마리엄의 부모님 역시 이러한 정치 사범이었고 감옥에서의 복역 이후에 간신히 독일로 망명했다. 마리엄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수감 생활과 고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지만, 마리엄은 수십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오무르 아타이 Ömür Atay가 감독한 형제(Brother, 2018)는 2018 아다나 영화제 최우수 남자 배우상을 수상했다.

유스프는 누이를 명에 살인한 18살의 형 라마잔을 대신하여 감옥에 보내진다. 4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보호 감찰로 출소한 유스프는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운 형에 의해 감시 당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옆 트레일러트럭 주유소의 모텔에서 생활한다. 형이 누이를 살인하도록 도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의 선택을 후회하는 유스프는 자스민이라는 여성과 조우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무화와 나무(Fig Tree, 2018, 감독 알라모크 다비디언 Aalam-Warqe Davidian)은 2018 토론토 국제영화제 유럽영상지원기금상을 수상했다. 16살의 유대인 소녀 미나는 내전 속에서 이디오피아에서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민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미나는 자신의 기독교인 남자친구 엘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 하지만 전쟁중에 계획이란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피아 실라기(Zsófia Szilágyi)가 감독한 헝가리 영화 원 데이 (One Day)는 2018 칸 영화제 비평가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 2018 예술영화제 최우수 여성 연기상을 수상했다.

40세의 안나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 그녀에게는 세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직장이 있고,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일상의 업무와 직장의 일, 아이들을 돌보는 안나는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일과 가정과, 육아의 일상의 가혹 함에 갇혀버린 여성의 하루를 다룬다.

베르히만: 가장 빛나던 순간 1957년 (Bergman: A Year in a Life)은 제인 마그누손 Jane Magnusson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8 유럽영화상 유럽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베르히만의 영화 '제7의 봉인'과 '산딸기'가 개봉되었던 1957년은 감독 임마르 베르히만의 전성기이기도 하다. 베르히만의 삶을 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는 인터뷰, 베르히만 영화의 클립들이 담겨있다.

미션 초이스는 선교 영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이다. 신앙의 비전을 고취시키고 복음의 가치를 영화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섹션이기도 하다.

케빈 노블락(Kevin Knoblock)이 감독한 팔라우(Palau the Movie).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스 팔라우는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단한다.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루이스는 그의 부르심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루이스 팔라우의 이야기는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

떻게 일하시는 지를 보여준다.

척 콘젤만과 캐리 솔로몬(Chuck Konzelman & Cary Solomon)이 감독한 언플랜드 (Unplanned)는 낙태를 다루어 화제를 일으켰다.

에바는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폴랜드 페어런트후드 클리닉의 최연소 센터장이다. 그녀는 22,000 여건의 낙태 상담에 관여하는 동안 아직은 한 번도 수술실에 들어가 본적은 없다. 어느 날 13주된 태아의 낙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에바는 처음으로 그 잔인한 수술을 목도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동시에 폴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정말로 지지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낙태를 판매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에바는 사직서를 제출한다.



로버트 페르난데스(Robert Fernandez)가 감독한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은 신앙의 여정을 다루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애니메이션.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과 위험과 방해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조연자들 덕분에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게 된다.

반태경 감독의 '북간도의 십자가'는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발자취를 담은 다큐멘터리. 조선이 혼란에 빠지면서 '간도 대통령'으로 불린 김약연 목사, 문익환 목사, 윤동주 시인 등 여러 가문이 북간도로 이주해 600만평을 구입해 공동체를 개척했다. '북간도의 십자가'는 북간도 출신의 마지막 생존 인사인 문동환 목사(문익환 목사 동생)와 젊은 역사학자 심용환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시선, 문동환 목사의 조카인 문성근씨의 내레이션으로 항일 운동과 기독교 정신을 살핀다.

이원식 감독의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Bethesda Japan) 3부작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동아시아가 열방을 섬기는 비전을 품은 이원식 감독의 선교 다큐멘터리이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는 작품, 2부 <베데사다 인 제편>은 기독교가 일본에 처음 들어오게 된 과정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왜 일본의 역사 속에서 부흥과 박해의 흔적들을 남기셨는지 추적한다.

필름포럼 초이스에 선정된 하나님과의 인터뷰(An Interview with God)는 페리 랑 감독의 미스터리 작품. 전도 유명한 저널리스트 폴 어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한 후 귀국하지만, 전쟁을 취재한 후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하고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료 역시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폴은 필사적으로 친구를 도우려고 한다.

폴이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위기에서 시달릴 때,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인터뷰를 제안 받는다. 이윽고 폴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김신의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 학사 과정 (B.Th/B.A)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 과정 (M.Div/M.A)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박사 과정 (D.Min/Ph.D)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학박사
- 기독교교육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씬,(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신앙은 절대성...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

SD종합건설(주)의 대표 정양국 집사를 만나다



정양국 집사는 “생의 가장 탁월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것”이라며 “결국은 제가 선택한 일인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제가 선택 한 게 아니었다. 처음 신앙할 때는 모든 것이 제가 잘 선택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신앙은 절대성이예요. 절대를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성’을 말하는 그의 눈이 촉촉해지더니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한 마디로 그의 삶의 기준과 그가 걸어온 삶이 한 눈에 펼쳐지는 듯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시작으로 2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건물마다 기공예배, 상량예배, 준공예배를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그. 그가 지은 건물의 머릿돌에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제는 많은 축복을 받아 단순 건물 건축을 넘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운동, 신학교 설립 지원, 선교사 지원 등 선교를 꿈꾸고 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온 SD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정양국 집사를 만나봤다.

건설업에 어떻게 뛰어들게 됐나요?

“젊었을 때부터 설비, 인테리어 등 건축 계통의 일을 했었지만, 종합건설회사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외우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대회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주겠다고 했더니 엄마와 같이 열심히 성경을 외우더라고요. 대회를 나가서 동상까지 받은 거예요. ‘뭐든지 얘기하라’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전 아들이 레고를 좋아하니까 레고 같은 걸 사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누나랑 상의를 하더니 갑자기 ‘집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땡’했죠. 약

속을 했잖아요. 그 후 여차저차해서 빌라 하나를 사게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집에 놀러 오셔서 이런 집을 짓고 싶다고 하였고, 제가 그 집을 지어드리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공사도 많이 했고, 건설회사를 하게 된 거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된 건가요?

“건설 업계나 영화 업계나 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기공과 상량, 준공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려요. 지금까지 꾸준히 잘 지켜왔어요.”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으셨나요?

“예배가 싫어서 참석 안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다들 좋아하세요. 협력 업체, 건물주, 교회 이렇게 같이 기공 예배하고 일을 시작하죠.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넌크리스천들도 예배로 시작하니 좀 믿음이 간다고 좋아했어요.”



SD종합건설이 시공한 건물의 머릿돌에 잠언 1장 7~9절이 새겨져 있다.

머릿돌은 한참 김영삼 대통령 때 실명제가 있었어요.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은 집에 전화번호와 회사 이름, 그리고 성경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머릿돌에 말씀을 한 구절을 박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넌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거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좋고 또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넌크리스천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간혹가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건축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 슬로건이 건강하고 행복한 집을 지어드린다는 것인데, 건축주에게 마음이 흡족한 집을 지으려고 하고요.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건설 일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이 있나요?

“중간에 카페도 한 적이 있는데 다 말아먹었죠. 신앙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성을 세우고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성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간 아들의 “집을 사달라” 는 부탁에 건설업 시작해

신앙의 우선순위 지키려면 절대적인 마음 있어야 나무가 자라려면 가지치기 하듯, 신앙도 가지치기 필요해

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절대성을 믿을 생활의 신조로 삼았어요. 가령 주일에 집안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해서 빠지고 빠지게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해요.

또 나무가 자라나면서 반드시 가지를 쳐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좋은 일만 있을 거 같지만,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며 복음을 전했고, 우리도 안되는 일들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라낼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을 잘라낼 때 고통이 있죠. 이런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공예배 처음 드릴 때 사람들이 ‘어지간히 티낸다’, ‘왜 그렇게 종교색을 드러내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들 좋아해 주시지만요. 현장에서 가까운 교회를 섬피하고 기도 해요. 최근에 정락교회 목사님과 두 번의 기공예배가 있었는데 ‘이런 건설회사도 있네?’하고 좋아하셨어요. 기공예배 때 헌금은 오신 교회 선교비로 다 드리려고요.”

직원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긴 한데 건설업체 특성 상 직원이 자주 바뀌어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직원 예배가 있는데, 믿든 안 믿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다들 기도문을 잘 써오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봤는데, 요즘 바빠서 못 봐서 다시 마음을 먹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은 안 빠뜨리잖아요. 말씀도 매일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심할 수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두려운 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두려워하지마라’

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두려워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의 70~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 늘 염려하고 걱정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도 돕고 계시는데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한 지 20년 넘었어요. 같은 동포인데, 우리는 너무 허례허식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6.25세대는 아니지만, 남북이 빨리 통일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직접 갔다와 보고, 고구마 심어주기 운동도 하고 밀가루도 보내고, 학교에 이런저런 도와줄 것 도와주고, 지금은 북한 사역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북한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션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요?

건축보다는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지금 영종도에 ‘커피나무숲카페교회’를 공사하고 있는데요, 커피 연구소, 박물관인데 주일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동화마을, 우주, 체험교실 등 아이들에 대한 꿈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카페이트 치킨 집이든 평일에 장사를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동시에 교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죠. 또 비즈니스 미션이란 마음을 갖고 세계 각국 미션을 꿈꾸고 있어요. 1,000명의 선교사와 협력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꿈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예수를 믿어서 대박이 났으니...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생각해봤어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으로 선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비즈니스 미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의 기자

극단 이즈키엘

뮤지컬

교회는 사람입니다

마루마을

장소 BARNSDALL GALLERY THEATRE
4800 HOLLYWOOD BLVD
LA, CA 90027 (무료 스트리트 파킹)

공연 날짜 6월 14일 (금) 7:30
6월 15일 (토) 3:30 & 7:30
6월 21일 (금) 7:30
6월 22일 (토) 공연 없음
6월 28일 (금) 7:30
6월 29일 (토) 3:30 & 7:30

213,200,0021
교회 단체 문의: 213.200.9544
카카오톡 ID: EzekielDM
온라인 예매: <http://ezekiel.la>
입장료: \$25 교회 단체: \$15

“북한 자유 운동, 악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

[인터뷰] 북한자유주간 이끈 수잔 솔티 대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이 현지시간 지난 4일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올해 행사에서는 북한 내 여성들이 주도해 시작한 장마당을 통해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북한 고아들과 군인들의 인권 실상이 새롭게 폭로됐다.

또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원,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연속으로 갖고 김정연의 전략 및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태 등을 전달했다.

이에 북한자유주간 주최 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를 만나 이번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며, 세계 교화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솔티 대표는 “북한 자유를 위한 운동은 악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며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가 특별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솔티 대표와의 일문일답.

제재 유지하면 내부서 김정은 포기할 때 올 것 한미, 북한 문제에 한 목소리로 대응했으면

지난 16년간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하며 목표했던 것이 악한 북한 정권의 붕괴였다. 현재 그 단계가 어느 쯤에 이르렀다고 보나?

“항상 북한 정권이 ‘내일’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이 운동을 해 왔다. 현재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을 비롯한 측근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현재의 제재를 그대로 유지만 해 나간다면 내부에서 김정은을 포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내에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온다.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1~2년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줄 변수가 있다면 그 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데 북한 내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 일에 있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16회 동안 북한자유주간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아볼 때 매 순간 힘겨운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미국과 한국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이번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이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세계의 교회가 특별히 북한의 자유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었으면 북한 자유의 시기를 더 앞당겼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할 때

다. 북한 자유 운동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황장엽 박사도 이 북한 자유 운동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

연합에서는 ‘북한을 위한 국제 기도와 금식의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고 북한자유주간이 시작됐던 4월 28일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앞으로 북한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날도 정할 것인데 한국교회와 전 세

누구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현재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특히 백악관 NSC의 키스태프들이 북한자유주간 스태프들과 탈북자 단체 대표단 전원 25명을 한번에 초청했다는 것은 큰 메시지를 준다. 당초 몇몇 핵심 관계자만 NSC에 출입하기로 했는데 전원을 초청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자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는데 미국정부가 북한 인권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전략'이 '사기'를 이긴 사건 '北 내부서 김정은에 의문 갖기 시작' 정보 입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것을 예상했나?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함정에 빠뜨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전략의 예술’이 ‘사기’의 예술을 이길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은 전략이 사기를 이긴 트럼프 대통령만의 비즈니스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 동안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면서 하노이로 왔다. 그런데 결국 아무런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김정은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에게 많은 압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제재가 풀리거나 하는 큰 성과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옴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김정은이 좋은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회담에 맞춰서 축하행사도 크게 하려다 취소되고 아무것도 못했다. 회담 결렬은 앞으로도 김정은에게 많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더 할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매 순간 폭풍 속에서 걷는 것과 같았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주변적 상황에는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다.” 김대원 기자

“항상 북한 정권이 ‘내일’ 붕괴될 것이라 믿고 이 운동을 해 왔다.”
 “韓-美 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 이야기 하지 않은 점 아쉬워.”
 “매 순간 폭풍 속 걷는 것과 같았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다.”

한국 정부는 한참 햇볕정책 중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압박하려 할 때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연임돼 북한에 대해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구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 세계교회, 북한 위해 금식기도 해 주길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물론이다. 인간적인 계획만 믿고 왔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

문에 또한 사탄의 역사도 강력히 일어나는 곳이 북한 땅이라고 생각한다. 김 씨 세습 정권의 악함과 그 아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만큼 사탄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다.”

북한 자유 운동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해주기 바라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금식해주기를 소원한다. 북한 자유 운동은 악한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특별히 금식기도를 해주기 바란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금식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자유

계 교회가 함께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번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그 동안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의회 증언이나 유엔 증언도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히 △김정은의 전략 △북한 내 장마당 활성화와 시민사회 형성 △북한 고아 인권문제 △북한 군인 인권문제 등 4가지 주제를 상세하게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렸고, 여성이 어떻게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인권유린을 당해 탈출한 고아들이 꽃제비가 되고 여자 고아들은 성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 군인들이 구타나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마을에 가서 먹을 것 혹은 물건을 훔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렸다. 그동안

2019 Los Angeles

(선교사, 전도사, 교회사역자 포함)

목회자 & 사모 영성 컨퍼런스

성령과 능력

Power and the Spirit

2019년 5월 29(수요일) 오전 10시 - 밤 10:00 (무료등록, 식사)

장소: 주안예교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픽업이 필요하신 분은 당일 오전 9:00am 한남체인에서/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미주크리스찬신학대학원,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LA 평신도를 위한 집회

일시: 2019년 5월 26일(주일) ~ 27일(월) 주일 오후1:30, 월 오전10:30
 장소: 탱크기도원 (2426 8th St, #221, LA, Ca 90006)

목회 특별 성령집회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저녁 7:00
 장소: 세계대교회 (타임 이상남 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미, 동남아 등)
 목회자 능력기도회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에리엔장로교회 담임
 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남부노회소속 목사

접수 / 픽업문의
562)896-3212
 (Esther Yoo 전도사)



100년 전, 소녀들이 남긴
그날의 가장 생생한 기록!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남가주 상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후원작품

나레이션/하희라 출연/이새봄 양윤희 김나니 박자희 김규리 김무늬 류의도 장세아 황도원 문보람 나예진 특별출연/황현주 김광식 오지현 우정출연/권영찬 김홍표
감독/신상민 작가/이은혜 총감독/윤학렬 제작/유관순은좌산집전문유한회사 공동제작/하세(HASE) | ㈜성진보고기 | 송연기업 | (주)풍진 | ㈜여의 | 기드온동족선교회 | 근우회 | 나눔과 기쁨



윤학렬 감독



황현주 앵커



박상원 목사

이날 영화의 강기자 역을 맡았던 황현주 앵커가 참석하여 복싸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어자막 제공

- 5월 17일(금) 오후 7:00 - 라스베가스청년연합집회
- 5월 19일(일) 오후 2:00 - LA웨스트힐장로교회 전교인영화상영
- 5월 22일(수) 오후 7:00 - 이음카페(E.Um Cafe) 한인타운 올림픽장로교회 옆
- 5월 23일(목) 오후 7:00 - SF산호세선교집회(오전 9:00~오후 9:00)
- 5월 24일(금) 오후 7:00 - 남가주은혜한인교회
- 5월 25일(토) 오전 6:00 - 엘에이사랑의교회
오후 7:00 - 미주비전교회
- 5월 26일(일) 오후 1:0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주최: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후원: 기독교일보

문의: T.(213)739-0403, (425)775-7477